



## 음주에 대한 경고

---

저자 (Authors)	노해리
출처 (Source)	<a href="#">신학지남 18(1)</a> , 1936.1, 59-64 (6 pages) <a href="#">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18(1)</a> , 1936.1, 59-64 (6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신학지남사</a> The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Theological Seminary
URL	<a href="http://www.dbpia.co.kr/Article/NODE00133200">http://www.dbpia.co.kr/Article/NODE00133200</a>
APA Style	노해리 (1936). 음주에 대한 경고. 신학지남, 18(1), 59-64.
이용정보 (Accessed)	경성대학교 210.110.162.*** 2018/07/18 20:46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飲酒에對한警告

魯 解 理

「本文」 「술이 붉어서 잔에 비취며 순하게 넘어

가는것을 보지 말지이다. 이것이 다 참내  
배암같이 물고 독사같이 소리라」장언二

十三〇三十一, 三十三

「序論」 이本文、篇言二二三〇二二一三十三은 우리가麻  
醉的飲料를 全然禁止해야 할것을 가르치었습니다。聖經  
에는 술과毒酒를 禁하라는 말씀이 累累히 出여 있음  
니다。

술도 過飲하지 아니하고 節制있게만 使用하면 平安  
다는 聖經句節을 찾으려면 없는것은 아닙니다。葡萄酒  
가 藥으로 使用된때도 있습니다(歲三十一〇六、腓三九  
〇二十三) 마수까지도 婚姻잔채 집에서 물을 葡萄酒로  
變케하여 同席한 손님들께 供饋하였읍니다(요二〇十  
七〇三十四)。執事는 술을過飲하지 않는者라야한다(딤후  
三〇八) 하였읍니다。

그反面에 祭司長이 聖殿에 들어갈때에 술먹는것을 禁  
하였으며(제四十四〇二十一、레十〇九)。나사렛黨과 그姪  
族中에있는 어머니는 술을 못먹게 하였으며(민六〇三

사사과十四〇三、눅一〇十五) 레삼의 後孫은 하나도 飲  
酒한者 없었으며(예레미아三十五〇六一十四) 술醉하는者는  
하나남나를 차지할수없다(고린六〇十) 하였읍니다。

「本論」 一、이本文에서 우리는 飲酒의誘惑을 避하여  
야 할것을 배웁니다。「술을 보지말라」하였읍니다。우리  
는 술먹는 座席으로 가지 말것이외다。「飲酒者의 同伴  
가 되지마라」(잠二十三〇二十) 하였읍니다。어떤사람은 일  
부러 술먹기를 願하는것은 아니지만 술동무들께 끼여  
술座席에 앉은 다음에는 그誘惑을이길 能力이 없어서  
그만 술먹는일이 있습니다。그럼으로 그럴誘惑의 由來  
하는 場所를 避하는것이 가장安全한 法입니다。

술먹는 飲食店이나 旅館에 들기를 避할것입니다。술  
먹는 宴會席에 가지말것입니다。술親舊와 交하지 말것  
입니다。그러나 이것은 그리 容易한일이 아닙니다。不  
得已 그대들과 同席하게될때에는 우리의 意志를 強固  
케하여 飲酒에 빠지지 말것입니다。

우리朝鮮信者들은 禁酒實行의 大端困難한 境遇에 處  
하여 있습니다。汽車안에서나 旅館에서나 어느宴會席에

서나 다飲酒합니다。學校先生들도 社交에 參與하려면 飲酒을 强要하게됩니다。信者의 親戚이나 親舊의 大多數는 不信者로서 술먹는 사람입니다。그러나 環境이 어떻다고 이 本文의 勸告를 等閑視할수는 없는 것입니다。即 誘惑을 避하고야 飲酒의 陷穽에 빠지지 않게 하여야 할것입니다。信者로서 婚姻관계나 其他 宴席을 차릴 때에는 決코 술을使用하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우리 信者로서 술먹는자는 多罪人이라고 말입니다。高調할 必要는 없습니다。술먹는者를 疏遠히 待遇할 必要도 없습니다。다만 機會있는데로 親切하게 警告해줄 것이며 우리自身의 模範的實行으로 우리는 어느때 어느곳에서나 決코 술을 먹지않는다는것을 보여서 無言의 警告를 恒常 줄것이니 이는 聖經의 教訓을 實行하는 것이며 基督教原理를 生活에 體顯하는 한가지가 되는것이외다。

多幸한點은 朝鮮의 不信者들은 信者는 依例히 禁酒한다는것을 明白의 事實같이 생각하는 그것입니다。敎會는 絶對禁酒를 主張합니다。信者는 禁酒運動의 先驅者입니다。이것은 新信者를 爲하여서나 이미 믿는者로서 술을 끊으려는 者에게 큰 便益이되며 힘이 되는것입니다。이 飲酒可否論에 있어서 信者는 決코 妥協的態度를 取해서는 안됩니다。여기에는 所謂 中庸이라는 安全地帶는 없는것이외다。우리는 可能的範圍안에서 온

것 飲酒의 誘惑을 避할것입니다。

二、이 本文은 술먹는데에 快樂을 느끼는 一面面이 있음을 가르쳐줍니다。술이 銀錢에서 水銀같이 흘러버린 짝이다가 順하게 목으로 넘어가는것을 말하였읍니다。이것이 飲酒者의 危機를지다。다만 한霎에 醉하거나 毒을 준다면 主君병이가 생기지 않을것이외다。그러나 飲酒의 危險은 이漸進的인 快味에 있는것입니다。맨처음에는 麥酒나 葡萄酒나 燒酒까지라도 無害한것같이 생각됩니다。조금식만 먹으면 害毒을끼치는 結果가 나가지 않는것같이 생각되는것입니다。

同時에 그맛이 香氣로우며 그빛이 아름다운것이 普通입니다。조금식 먹으면 心情에愉快을 느끼게 합니다。親友와의 交分을 더욱 親密하게하는 것같습니다。저들은 앉아있을 서로 勸하며 웃으며 서로弄談합니다。酒店의 裝飾은 더욱 華麗합니다。電燈은 더욱 輝煌하고 도 은근합니다。흔히는 좋은音樂도 있으며 舞踏도 種種 있습니다。

술 廣告는 더욱 人氣를 끄읍니다。酒精이身體에 害를 준다는點은 秋毫도 생각할수 없게 하였읍니다。過飲하거나 술에 인백이는것이 危險한것도 警告하지 않았읍니다。

술 먹기始作할때에는 누구를 勿論하고 自己가 主君병이 되리라고 생각하는者가 없는法입니다。그는 節制

있게 먹으라 하고 自認합니다. 술먹기 始作한者の 百分之九十九는 節制있게 술먹지 못한다는 事實을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는 술의 愉快한方面만 봅니다. 親舊들도 물려다니며 먹고 마십니다. 興들이 나서 中和합니다.

舊約에 다니엘은 飲酒의 快味에 誘惑받지 않았을니다. 그는 스스로決心하기를 自己는 決코 王의 宮庭의 飲食으로나 그술로 自己를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였을니다. 그가 말하기를 「열흘 동안만 우리에게 蔬菜와 물만주어 먹게하여 試驗해 보소」 하였을니다. 그렇게한지 十日만에 王의 상에서 난존 고기와 술을 먹은 사람들과 蔬菜와 물만 먹인 다니엘과를 比較함에 다니엘의 氣는 더욱 빛나고 그몸은 더욱 살찔었다 하였을니다. 그리하여 王의 床에서 오는 고기와 술을 그만두게하고 蔬菜와 물만으로 供饋하였다 한것입니다(단 一〇八、十二、十五、十六).

술은 아모리 節制있게 먹는다 할지라도 有害無益하며 愉快한듯하나 苦痛을 內包한것이라는 事實을 왜 그리도 모르는지요? 運動競技하는 者는 餓習할때에 決코 술을使用하지 않습니다. 寒帶를 探險하는 者는 비록 추운氣候일지라도 採溫하기爲하여 술먹는일이 없습니다. 汽車運搬手나 工場機關手等은 그들의 執務中 飲酒하는 일을 嚴禁합니다. 무서운 自動車事故의 發生은 그運轉

手が 麥酒두어잔 먹은데 그原因이 있다는 事實이 헤일수없이 많습니다. 專門學校學生들中 飲酒하는 者와 禁酒하는 者의 成績을 比較하여 飲酒者가 얼마나 成績이 低劣하게 되는것을 立證한것도 꽤 많습니다.

克己修養을 하여볼려는 사람이면 술을먹기 始作한다음에 술꾼기爲하여 힘쓰는것보다 처음부터 도모지 술먹지않기爲한 修養을 할것입니다. 自己의 親한 親舊들을 向하여 「나는 술먹지 않소」하고 斷然히 그들과 酒席에 가지하지 않는다는 莫大한 勇氣와 決心을 要하는것입니다. 저들은 어떤때에는 술안먹는 親舊를 嘲弄합니다. 또 어떤때에는 「한罐만 먹는데야 무슨 일이 있나?」 자 가지 멋있게 볼세그러!」하고 勸합니다. 어떤 宴會席에 갔을때 다들 술먹는데 나 혼자만 뽀뽀하게 앉아 있기는 甚히 不愉快합니다. 더군다나 그座席에 參與한者가 相當한 紳士들인 때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 境遇에 흔히 飲酒하기 始作하는것입니다. 親舊들의 술座席으로 引導합니다. 술罐을 勸합니다. 親舊의 술罐이니 拒絶하지 말라고 懇勸합니다.

그러나 聖經에 무어라 말하였을니까? 「술은 거만케 할이오 毒한술은 더들게 하니나 무릇이기 미혹한者는 지혜가 없도다」(잠二二〇) 「술을 좋아하는者는 富者가 되지 못하리로다」(잠二二一〇十七) 禍를얻을진커 아들이 일즉히 이러나 毒酒를 찾아가지 밤이 늦도록 머물러

醉하는者여! 커히가 自己의 安樂에 거문고와 비파와 소고와 적(笛)과 술을두고 며호아의 行하는것을 생 각하지 아니하며 그손으로 지은것을 도라보지아니한다」 (이사야五〇十一, 十二)

三、飲酒의 結果는 大體도悲慘한것입니다. 「마춘바배 암갈이 불고 毒蛇같이쏘는」것이니 卽 死를 意味한것 입니다. 「누구든지 심은대로 거두리라」(갈六〇七)술이 販賣되고 술먹는者가 있는 限에서는 주정뱅이는 곧치 지 않을것이외다. 그結果는 貧窮입니다. 「술醉하는者와 食食하는者는 가난하여 진것이오 조름을 食하는者는 해 여진 옷을 입으리라」(잠三三〇三十一)一言而弊之하 고 飲酒의 結果는 죽음, 가난, 慘憺, 차움, 犯罪, 金錢 과生命의 浪費等이외다.

東亞日報 一九三五年五月八日 所載統計에 依하면 朝鮮內에서 술消費額이 七千萬圓, 煙草消費額이 三千五百萬圓, 兩者合하면 一億圓以上을 一年間에 酒草代로 消費하는셈이니 每家庭平均二十五圓式의 巨額이 되는것입니다. 이렇게 消費하면서도 言必稱 貧乏, 經濟破滅云云의 不平만말하는것은 民망한일이외다.

이들은 每年 二萬九千圓經費는 學校四千校를 運轉 해갈수 있는것이며 한學校에 二百五十名씩 收容한다할 지라도 百萬名의 兒童을 學校에 就學케 할수있는것임 니다. 一九三三年에 朝鮮內 學校總數가 三千五百校이었

음」다. 이것은 書堂을 除한外의 公、私、宣敎會、敎會 等經營에屬한 各等級의學校를 全部 總計한것입니다. 그 러고 學生登錄數는 七十七萬七千名이었으니 每校平均二 百二十名 收容된셈입니다. 一億圓의 돈으로 가난한 사 람들을 爲하야 二百五十圓자리집한채式 지어준다면 四 十萬戶의 집을 지을수 있습니다.

村落마다 尙 普遍的으로 酒에 酩酊은 술, 단 배 관다는 門牌외다. 數年前에 京城市外 約七里(朝鮮里 數)사이의 시골거리를 거닐며 해피보니 술집이 四十 二戶였으며 간데마다 술집은 自轉車가 놓여 있었습니 다. 그리고 주정꾼이 간데마다 허둥거리는것을 보았습 니다.

우리는 다만 七千萬圓이란 經濟的損失만을 念頭에 둘 것이 아닙니다. 下記하는 問題에 對答해보십시오 「재앙 있는者가 누구며 근심있는者가 누구며 분쟁 있는者가 누구며 원망하는者가 누구며 가담없이 傷한者가 누구 며 붉은 눈 있는者가 누구요?」(잠三三〇二十九)

酒精은 食物이 아닌것은 다들압니다. 酒精도 조곰 식만 攝取하면 몸에 큰害는 없다고 主張하는者라도 그 것이 몸에 益有益하다는 말은敢히 못합니다. 술을 조 금식만 먹노라는者가 흔하는 술먹잔코는 못견디는 술 中毒者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習慣이 된다음에는 經 濟的、性格的損失、或破産을 招來하는것이 自然的歸結임

니다. 그러하면 외 술을 먹는단 말씀입니까? 教育도衣食도 슬며튼에 다 통하게 된다면 우리 信者로서 絶對禁酒、禁煙을 實行하여 一般에게 模範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勿論히도 朝鮮에 있어서는 信者는 依例히 禁酒、禁煙한다는 것을 一般이다 認定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信者는 禁酒、禁煙、禁賭(賭禁)運動의 先驅者、指導者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古今東西의 人間經驗은 다함께 飲酒의 終末는 痛과 靈魂의 死亡이라는 것을 證明하고 있습니다. 本文에 있는 「배알골의 불고」 惡魔의 惡魔의 惡魔는 一般적으로 體驗된 事實입니다.

〔結論〕 우리 信者는 酒類賣買의 對하여 憎惡와 反對의 態度를 表明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飲酒의 惡癖에 犧牲된 사람에게 對하여는 絶對의 同情을 表해야 그로하여금 어찌게든지 그 習慣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어야 하겠읍니다. 그런데 이에 서 벗어나는 데에 가장 確實有名한 方途는 참으로 惟改하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음으로 이 可惡한 飲酒의 習慣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속해 만읍니다.

우리는 술먹는者는 救濟받지 못한다고 斷言하는者의 極端의 態度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러한者를 사랑으로 勸勉하되 술이 인이나 危險하다는 것을 詢問하 말해주며 敎會、家庭及自身을 爲하여 酒類를 全然禁止

해야 할 것을 늘 勸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信者는 오직 禁酒運動을 絶對支持해야 하겠읍니다. 禁酒를 爲한 輿論을 喚起하여야 합니다. 한동리만 술販자가 없어져도 그만큼 所得이 있읍니다. 禁酒、禁煙은 主日學校와 敎會學校에서 가르치야 하겠읍니다. 牧師와 敎會指導者들은 飲酒에 對한 警告를 講壇에서 웨치야 하겠읍니다. 學校、敎會에서서는 禁酒雄辯大會等을 자주 開催할 것이 외다.

各敎會는 節制運動을 爲한 短行本을 많이 注文하여 敎人들에게 配付하며 그 模範한 結果를 圖示한 形이 飲酒의 敎會나 學校建物의 重要한 場所에 걸려두어 飲酒의 毒에 對한 印象을 强게 할 것입니다. 卽 우리는 우리와 合心하지 않는者를 強迫하지 않고서 할수 있는 온갖 善한努力을 다 하여야 하겠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중에 「肉身만 죽임수 있는者를 두려워하지 말고 肉身과 靈魂을 둘다 죽여 地獄에 던질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마 十〇二十八)한 것이 있거니와 술은 진실로 몸과 靈魂을 함께 죽이는 것이라 할수 있읍니다. 이는 毒蛇보다도 傳染病보다도 더욱 무서운 것이니 飲酒의 惡毒은 大惡侵入하는 軍隊와 같은 大規模의 強敵입니다.

箴言四〇十四、十五에 「사탄한者의 길로 들어가자 말며 惡한者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자

도 말며 도리켜 떠나갈사이다」하였으니 이것이 곧 우리  
리가 酒類販賣店에 對한 態度를 밝게 가르친 것이외다  
箴言 六〇二十七―二十八에 한 問題를 提示한 것이 있  
으니「사람이 불을 품에 품어도 그 옷이 타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람이 술을 삼아도 그 말이 데지 않을 수 있  
겠느냐?」한 것입니다. 이에 對한 對答은 곧「그렇게 될  
수 없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決코 酒類販賣等에 妥協할 것이 아닙니다. 술  
은 노아 自身이 술醉함으로 醜態를 보인 以來 줄곧  
萬人의 咀呪가 된 人類의 敵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銀을 달아서 穢穢 되지 못할 것을  
사며 어찌하여 手苦하여 얻은 것을 주고 배부르게 못  
할 볼건을 밋고나냐」(이사야 五十五〇二)「붓잡지도 말  
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모든 볼건은 쓰는  
대로 파하는 것이니라」(골로二二一、二二二)이것은 술  
에 있어서도「사람의命과 가르침을 좇는 儀文」에서와  
똑같이 適用될 것입니다.

天使는 삼손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삼가 술을 마  
시게 말라」(사사기十三〇四、十三)하였읍니다. 이것이 또  
한 오늘날 우리에게 發하는 하나님 의 警告를 시다. 조  
심합시다!

(七八頁에서)

四、이 奇蹟의 結果를 보십시오. 커들은 하나님을 榮  
華롭게 하는 것보다도 도로히 그의 恩惠를 심어 버렸읍니다  
救援이 當장 自己가운데 들어왔는데 그것을 커내곶았  
읍니다. 얼마나 무서운 罪오니까? 우리도 種種 이런  
罪를 犯하지안는지요? 하나님보다 自己의 世上所有를  
더 사랑하여 主日날에 敎會堂가는 代身에 市場으로가며  
農事나 장사가 너무 분주하여서 主의 일을 等閑히하며  
自己私慾에 눈이 어두어 主님의 일을 爲하여 所定의  
獻金을 하지 안는 것같은 것입니다 이와 同類의 罪을 시다.  
五、靈魂의 救援이 世上 얻는 것보다도 貴합니다 現  
代와 같이 物質化해가는 世代에 있어서는 더욱 더욱 眞理를  
高擡할 것이외다. 우리靈魂과 하나님사이에 富를介在시켜서  
는 안됩니다. 우리는 富와 하나님을 함께 생각할 수 없습니다.  
六、이때 病나온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한 것  
과 예수께서 그에게 命令하신 것을 吟味합시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보다도 自己의 親舊와 親戚의 사 이에 들어  
가서 호자 主를 證據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눅모르는 사람께 傳道하기보다도 親한 사람께 傳道하기  
는 더욱 쉬운 일입니다. 外國宣敎師가 더 勇敢하고 奮勇  
한 줄 알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洞裏와 親戚에게 예수傳  
하는 것은 더욱 어렵고 貴한 일입니다. 언제 어찌서나  
主님을 證據할 것입니다.